



한일 표준화 공동연구 협의회차 일본을 다녀와서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령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아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일본... ..

그 중에서도 일본열도의 남단인 쿠슈(九州)의 후쿠오카(福岡) <역이름은 하카다(博多)> 공항을 거쳐 도스(鳥栖)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나가사키(長崎)의 나가사키대학을 방문하여 파이세라믹스분야 표준화연구의 현황을 조사하고 한·일 표준화 국제 공동연구 개발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후쿠오카공항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경이었고, 마중 나온 구주산업기술센터의 히사토 도쿠부찌(徳淵 久人) 부장의 승용차로 도쿠부찌 부장의 댁으로 안내되어 첫날의 일본 일정을 시작하였다.

도쿠부찌 부장 댁은 후쿠오카에서 조금 떨어진 도스(鳥栖)에 있었다.

도스(鳥栖)는 북으로는 후쿠오카(福岡), 남으로는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熊本), 동으로는 벳부(別部), 오이따(大分), 미야자키(宮崎) 등으로 갈 수 있는 구주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천안삼거리 같은 곳이지만 일본의 전형적인 시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위성도시라고 하였다.

일본에서의 첫날 첫 식사는 도쿠부찌 부장의 댁에서 시작되었다.

도착하여 별채에 짐을 풀고 가져간 김치 및 김 등 선물을 전달하고 저녁이 차려진 식탁에 앉혀졌다.

식탁 가득히 차려진 음식들, 우리가 항상 말하던 일본식탁이 아닌 우리나라 어느 집 환갑잔치 때보다 많은 음식이 차려진 식탁, 특히 말고기 육회·와사비 나무 절임·김말이 주먹밥 등 일본에서 맞이하는 처음의 저녁은 이렇게 조금은 놀라움을 느끼며 저물어 갔다.

참고로 도쿠부찌 부장의 댁은 논집적으로 660㎡ 정도의 대지에 400㎡ 건평으로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 건물로 본관은 2층, 별채는 1층으로 구성되어, 서고 및 접대실의 바닥은 다다미가 깔려있는 일본에서도 중상류 이상으로 보이는 집이었다.

아래채의 특징은 조상을 모시고 있는 공간과 벽에는 도쿠부찌 부장의 각종 자격증 및 자녀들의 상장 등이 걸려 있어 이 집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환영회를 겸한 저녁 만찬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우리 같이 온돌방이 아니라 외풍이 심하여 머리는 서늘하고 이불 밖으로 나오면 이가 타자를 칠 정도로 추웠다.

조 연구관의 코로 부는 스테레오 소리가 너무 요란하여 잠이 들었다 깨었다 뒤척이며, 코로 부는 피리는 나도 한 가락 하는 데 나보다 고수라는 것을 느끼며 내일부터는 먼저 잠자리에 들기로 작전을 세우면서

일본에서의 첫날밤은 지나가고 있었다.

역시 집 떠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을 되뇌이며.....!

다음 날,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구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소재부연구부장인 히로시 타테야마(立山 博) 부장과 파인세라믹스 분야에서의 표준화 한일공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일정, 자금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8월경에 있을 우리 부 산업기술국과 구주 경제산업국과의 한일산업기술협력 정기회의에 한·일 공동 표준화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 다음날 도꾸부치 부장의 승용차를 빌려 나가사키 대학을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운전자는 조덕호 연구관 조수는 나, 교통체계가 다른 일본에서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게라고 생각하였으나 조덕호연구관이 일본에서 몇 년을 파견 근무한 적이 있어 염려는 기우였으나, 내가 놀란 것은 도꾸부치 부장의 조덕호연구관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 하여도 자기 차를 빌려주는 게 어려울 터인 데 남의 나라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다는 것에 대하여 내 생각으로 조금은 혼란스러웠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이 통하면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도스에서 나가사키까지 110km 정도이고 통행료는 2900엔으로 상당히 비싸구나 생각해 보았다. 나가사키에 진입하여 도시고속도로를 통하여 시내로 들어갈 때 시내통행료 260엔을 지불하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도로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돈을 받는 것은 비슷하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헤매지 아니하고 나가사키 대학에 도착하여 공학부 재료공학과와 국한재료학 연구실에서 야스오

우찌야마(内山 休男) 교수를 만나 파인세라믹스 분야에서의 표준화 한일공동연구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공동협력과제로 '탄소재료의 내산화성 평가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금년 8월경에 개최되는 한일기술협력 정기회의에 과제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찌야마 교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폭투하지점 근처인 평화공원 옆 중국음식점에서 늦은 점심을 사주시고 조수인 히데야키 사노(佐野 秀明)에게 휴화산인 운진(雲仙)화산을 안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고 싶다.

운진 지옥에서 천연온천수로 쥘 계란은 먹었는데 사이다를 먹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젠 분명 안내자의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그 날 저녁은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3대가 살고 있는 나가사키 대학의 층무계장인 교오코 마쓰바야시(松林 京子) 님으로 안내되어 전통음식을 대접받고 잠자리도 제공받아 이번 출장중 3번째로 방문한 일본의 집으로 기록되었다.

늦게 일어나 밥과 된장국으로 된 일본식 아침을 먹고 도스(鳥栖)로 돌아오는 길에 규슈 북서부에 위치한 일본 도자기 산업의 고향인 아리타(有田)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아리타는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후, 도자기를 제조하는 기술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일본인들이 '도조(陶祖)' 라고 칭송하고 있는 조선의 도공 이삼평(李參平) 공의 비가 있는 곳이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였을 당시만 하여도 일본에는 토기 외에 도자기는 없었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인들이 조선 백자에 넋을 잃었을 것은 자명한 이치로 다수의 조선 도공들을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갔던 것이다. 이들 조선의 도공들이 만든 아리타야키

(有田焼)는 가고시마의 사쯔마야끼(이 또한 우리의 조상인 심수관 옹의 후예들에 의해 제작되고 있음)와 함께 일본 도자기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17세기 들어 인근 이마리(伊萬里) 항을 통해 유럽 여러 나라로 팔려나가면서 중국 다음 가는 동양 도자기 생산지로 만들었다. 당시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의 공전이나 귀족의 저택에는 이 아리타 도자기 한두 점 정도는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이렇게 배풀어 준 은혜도 모르고 심심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데야 폐쇄한 생각도 들었다. 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보며 서있는 이삼평 공의 유적비가 마치 두고온 조국의 고향 땅을 그리며 바라보고 있는 이삼평 공의 모습인 것 같아 조금은 우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아리타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옛날부터 宿場으로써 요양을 위해 입목을 했다고 전해지는 온천 휴양지로 유명한 다케오(武雄) 온천에서 피로를 풀었다. 이 다케오(武雄) 온천은 음료용과 목욕용으로 구분할 정도로 향과 질이 좋기로 유명하여 옛날 일본의 천황도 자주 찾곤 했다고 한다.

일본을 처음 방문하면서 전통적이고 각기 특색이 있는 보통의 일본인의 가정에서 매일 다른 음식과 잠자리를 체험하게 한 조덕호연구관계 감사드리며 몇 가지 느낌을 적어보고자 한다.

숙박을 한 4가정 모두 생활수준이 일본에서도 중류 이상이라고는 하나 화장실을 욕실과 완전히 구분하여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화장실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생각하여 꽃 등으로 장식하여 꾸미고 있는 점, 집안과 밖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꾸미고 가꾸고 하는 점, 벗꽃 놀이를 하는 공원에서 모두 다 돛자리·도시락 등을 가지고 와서 먹거나 설렁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 갈 때는 올 때와 같이 깨끗이 청소를 하는 점, 공원 주위에 음식점이 없고 간이주점 두세 군데만 있는 점, 자기 자리라고 비닐 끈으로 둘러를 쳐 놓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점 등은 좋은 점으로 다가왔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도 관심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철저한 개인주의에 의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교회나 성당이 토착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은 침략을 받아 보지 않은 환경에서 조성된 단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일본에서 십자가를 한번도 보지 못한 것은 多神에 의한 神寺文化는 일본의 개인주의를 대표하면서 한 가지에 맹종하는 예를 들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한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한을 풀어야 하는 환경에서 기독교는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내 나름대로 일본의 신사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다.

일본출장기를 마감하면서 기술표준원의 연구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탄생에서부터 운영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기술표준원의 연구업무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